

[보도자료] 쿠팡,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 에어퓨리파이어3H’ 단독 판매

2019. 11. 5.



-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30일간 쿠팡에서만 판매
- 기본가 16만 9000원, 5일 런칭 당일 2만원 쿠폰 적용 14만 9000원

2019. 11. 5 서울— 쿠팡은 샤오미 공기청정기 ‘미 에어퓨리파이어3H(Mi AirPurifier 3H, 이하 미에어3H)’를 국내에서 공식 론칭하고 다음달 4일까지 단독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샤오미 ‘미 에어3H’는 이전 모델인 ‘미 에어2S’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용면적, 필터효과 등이 향상된 상품이다. 헤파필터를 적용해 먼지, 꽃가루, 황사물질 등의 미세먼지 99.97%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온도, 습도, 미세먼지지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터치패널을 탑재해 작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사용 편의를 높였다. 또 샤오미 ‘미 홈 어플’을 통해 공기상태 확인 및 타이머설정, 자동모드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5일부터 쿠팡에서만 유일하게 선보이며 기본 가격은 16만9000원, 런칭 당일 2만원 다운로드 쿠폰 적용 시 쿠팡가는 14만 9000원이다. 기본 구성품은 에어퓨리파이어3H와 헤파필터, 국내용 220볼트 전원코드, 사용설명서로 돼 있다.

조나단 벅스 쿠팡 시니어 디렉터는 “업그레이드 된 신규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쿠팡에서만 선보여 고객들이 편하게 상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고객들이 원하는 인기 상품을 마련해 그 어떤 판매처보다 로켓배송, 새벽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